

일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요인

조 유 향*

I. 서 론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입시에 시달리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유의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생은 엄청난 생활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최미혜 등, 1998).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韓·日비교연구결과(尾關友佳子 등, 1993), 한국과 일본대학생과는 체험한 스트레스요인의 빈도보다 자각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반응의 강도와 질,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행하는 대처와 유효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김광일 등, 1994)에 의하면 일본과 한국대학생에 비해 중국대학생은 스트레스 영역이 아주 다양하였고 그 정도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스트레스의 영역과 그 정도는 사회의 변천 내지는 특수성의 영향을 다분히 받지만, 대처양식은 전통적인 행동양식의 영향을 다분히 받는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성격(김영미, 1991; 신기숙, 1987; 남지영, 1999), 대학생활적응(황상하, 1995), 자아강도(하영운, 1996), 불안(이혜

경, 1989), 우울(오미나, 1998), 취업(황성원, 1998), 식생활양상(신수희, 1999; 남희정 등, 2002)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원은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 및 학점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Fullerton & Potkay, 1973),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 조직체계가 다른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실습을 해야 하고, 간호사로서의 직업관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이미라 등, 2000).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연구(박오장, 1978; 박현옥, 1982; 전화연, 1984; 강정희, 1989; 이인순, 1990; 배종면 등, 1994; 조남옥, 1998; 김태희, 1999; 배정이, 1999; 장혜숙 등, 1999; 원종순 등, 2000)는 대부분이 임상실습과 관련된 것으로 임상실습이 스트레스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박현숙 등, 2002)도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유의한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에게는 임상실습 이외에도 간호사 국가시험이 주된 스트레스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하는 병원의 취업희망과 더불어 전공교과목의 비중

* 초담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yhcho@chodang.ac.kr)

으로 인한 학년간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가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없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요인,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반응, 대처양상을 파악하면서, 주요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국가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4학년과 타학년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학년간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머와 사회적 지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尾關友佳子, 1994), 이들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국가시험에 관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의 제공이 됨과 동시에 간호대학생의 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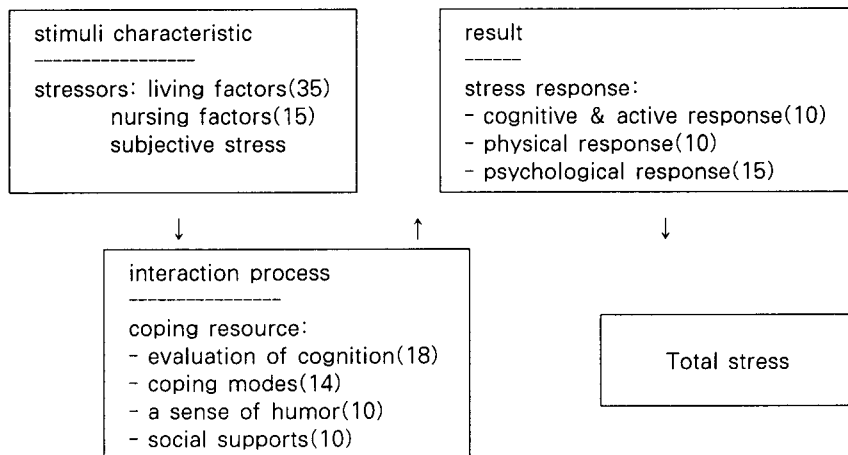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정도, 요인, 반응 및 대처양상과 스트레스원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년간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 요인, 반응 및 대처양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정도, 요인, 반응 및 대처양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II. 연구 방법



note) () was Number of question

<Figure 1> Frame of analysis according to stress process

자료) 山本富士江, 趙留香, 尾關友佳子: 日韓看護大生のストレス過程の比較考察, 日本國立公衆衛生學會, 367, 2001

1. 조사방법과 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여 스트레스의 요인, 반응 및 대처방안에 대한 학년간 차와 특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원의 하나인 국가시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정도를 보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조사대상은 일개 사립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4학년 학생으로 조사 당일에 등교한 모든 학생으로, 최종 분석대상 학생은 314명이었다.

조사방법은 일부 강의가 끝난 휴식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케 하였으며, 1-2, 4학년은 2000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3학년은 5월부터 9월까지 임상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실습이 끝난 10월에 조사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과 간호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로 사용된 스트레스척도는 <Figure 1>과 같이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반응, 스트레스대처, 인지적 평가 및 주관적 스트레스도의 5종류로 구성된 대학

생용 스트레스자기평가척도(尾關友佳子 등, 1991)를 활용하여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 보완된 항목은 일반대학생에게 적용하는 기존 스트레스조사표에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실습에 관련된 항목을 보완, 개발한 것이다(山本富士江 등, 2001).

조사내용은 스트레스척도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성별, 유머정도 및 사회적 지원을 보았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후, 간호학과 교수 2명과 학생 1인에게 각 문항이 해당내용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평정자간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능통한 한국인(일본거주)에게 일본어로 재번역토록 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조유향, 山本富士江, 2002).

스트레스요인척도는, 생활요인으로는 대학생이 일상 생활에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체험한 35문항을, 간호요인으로는 간호실습을 통한 15문항으로 구성하여 4점 척도로 「하지 않는다」를 0점으로 하고 「간혹 한다」 1점, 「가끔 한다」 2점, 「언제나 한다」 3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요 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개방질문을 통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스트레스상황에서 생기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반응을 측정하고자 심리적 반응 15문항, 인지행동적 반응 10문항 및 신체적 반응 10문항으로 모두 35문항에서 4점 척도로 「아니다」 0점, 「그저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처척도는 스트레스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또는 행동적인 노력과 그의 유효성을 측정하고자 대처양상에서 문제초점형 대처 5문항, 회피 및 도피형 대처 6문항, 심리적 대처 3문항으로 총 14문항에서 「하지 않는다」 1점, 「간혹 한

다」 2점, 「가끔 한다」 3점, 「언제나 한다」 4점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평가(위협감 8문항과 통제감 10문항)와 유머정도(10문항)는 4점 척도로 「아니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은 5점 척도로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많이 있다」 5점으로 10문항을 조사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는 0점-100점으로 구분하여 높은 점수가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하여 본인이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들 항목의 신뢰도 Alpha값이 스트레스 요인척도는 0.8992,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9109, 대처양상 척도는 .8330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으로 본 유머감각은 .6872, 사회적 지원은 .8899이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평균을 계산하였고 ANOVA를 이용하여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하였고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간호대학생은 314명으로 재학생 정원 375명의 83.7%의 응답율을 보였다. 1학년이 가장 많이 조사에 응하였으나, 응답율은 4학년이 91.6%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이 76.0%로 가장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6명이 포함되었다.

이들 조사대상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응답율과 일반적 특성으로 본 유머감각 및 사회적 지원정도를 제시한 것이 <Table 1>이다.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esponse rate of the surveyed nursing students

unit : person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total
Total No. of student	100	100	91	84	375 (9)
No. of response students	86	76	75	77	314 (6)
response rate	86.0%	76.0%	82.4%	91.6%	83.7%(66.7%)
a sense of humor	.65±.47	.74±.52	.95±.65	.76±.54	23.85±.48
social support	2.49±.56	2.53±.61	2.63±.55	2.54±.54	25.40±0.57

note) 1. () is the number of the male students.

간호대학생의 유머 평균점수는 3학년이 .95±.65점으로 가장 높았고 1학년이 .65±.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지원의 평균점수도 3학년이 2.6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1학년이 2.49±.56점으로 가장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간호대학생의 유머점수의 총점은 23.85±.48점으로 사회적 지원점수의 총점인 25.40±0.57점으로 유머점수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학년간에는 유머점수만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의 요인, 반응 및 대처의 학년별 분석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요인, 반응과 대처를 포함하여 스트레스정도에 대하여 학년별로 분석하여 보았다(Table 2).

스트레스요인 중 생활요인은 4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러나 간호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3학년보다 4학년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국가시험과 취업이라는 부담감과 더불어 실습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아 1.45±.59점이었고, 3학년이 가장 낮아 .74±.42점으로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반응은 심리적 반응, 인지행동적 반응 및 신체적 반응으로 나누어 학년별로 보았는데, 심리적 반응이 높은 반면 인지행동적 반응은 낮은 편이었다($p<.001$). 이들 반응 모두 4학년이 가장 높았으나, 3학년이 가장 낮았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가장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재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한 것을 학년별로 정리하였는데, 심리적 대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문제초점형 대처, 회피도피형 대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대처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았고 문제초점형 대처는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회피도피형 대처는 3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체로 고학년에서는 심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학년은 회피도피형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통제감이 높게 나타났다. 위협감과 통제감 모두 4학년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통제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능력의 함양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를 "현재 귀하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0-100점)로 질문하여 파악한 결과, 전학년 총점은 63.2점이었으나 학년별로는 4학년이 가장 높아 70.59점으로 평균보다 약 7점 정도 높았고, 1학년에 비해서는 10점 정도 높은 주관적 스트레스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1학년, 2학년, 4학년의 순이었다.

<Table 2> distribution of stress of the surveyed nursing students

	total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F
stressors						
living factors	.75±.40	.79±.38	.77±.39	.56±.34	.88±.43	3.620*
nursing factors	.65±.40	-	-	.56±.38	.72±.40	7.932**
stress responses						
psychological	1.22±.65	1.18±.60	1.25±.53	.75±.50	1.61±.64	26.500***
cognitive & active	.93±.61	.83±.53	1.05±.60	.69±.50	1.13±.68	9.753***
physical	1.13±.68	1.10±.61	1.06±.52	.77±.32	1.52±.70	16.913***
copying modes						
problem-focused	1.46±.52	1.43±.50	1.30±.48	1.48±.53	1.61±.52	3.539**
negative focused	1.31±.54	1.23±.50	1.26±.46	1.52±.55	1.28±.59	1.692
emotion-focused	2.14±.59	2.17±.57	1.97±.62	2.24±.55	2.21±.57	2.790*
evaluation of cognition						
dangerous sense	1.59±.66	1.52±.54	1.63±.62	1.40±.70	1.80±.70	1.432
control sense	1.62±.63	1.61±.69	1.76±.56	1.77±.66	1.92±.58	1.016
subjective stress	63.20±14.212	59.85±14.51	63.03±16.01	59.33±15.12	70.59±15.12	2.806*

* $p<.05$, ** $p<.01$, *** $p<.001$

3. 스트레스의 주요 내용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의 주요 내용을 질문한 결과, 학년별 스트레스의 내용을 순위별로 본 것이 <Table 3>와 같다.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1학년은 「학점관리」였으나, 2학년과 3학년은 「시험」과 「학점관리」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4학년은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준비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 관한 스트레스가 4학년에서만 부상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4학년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이라고 응답하였다.

스트레스의 두 번째의 문제는 「인간관계」로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3순위는 1-2학년은 「생활환경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나타났으나, 3-4학년은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한 것이 스트레스로 대두되었다. 4순위로는 1, 2, 3학년 모두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차지하였으나, 4학년에서는 「학점」으로 대두되었다. 5순위는 2-3학년에서 생활환경이 스트레스로 대두되었고, 4학년에서는 「신체적 문제」가 거론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4.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요인과 간호대학생의 유머, 사회적 지원정도, 학년, 성별 특성과 스트레스반응 및 대처양상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Important problem among the stressors of the surveyed nursing students

order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1	credits	examination, credits	examination,	national examination
2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3	liv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blem	vision of future	vision of future
4	economical problem	economical problem	economical problem	credits
5	etc.	living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physical problem
No. of students	86	76	75	77

note) multiple responses

<Table 4>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S1	A1	A2	R1	R2	R3	C1	C2	C3	D1	H1	SS
S1	1.00											
A1	.10	1.00										
A2	.02	.04	1.00									
R1	.09	.16**	-.06	1.00								
R2	.09	.10	-.07	.70**	1.00							
R3	.09	.16**	.01	.67**	.63**	1.00						
C1	.74**	.11	.07	.20	.16	.18**	1.00					
C2	.82**	-.06	-.02	.03	.09	.02	.33**	1.00				
C3	.62**	.05	-.01**	-.08	-.11	-.01	.31**	.31**	1.00			
D1	.19**	.12*	.05	.43**	.40**	.39	.30**	.11	-.04	1.00		
H1	-.08	.01	.09	-.17**	-.24**	-.12	-.05	-.17**	.12*	-.07	1.00	
SS	.10	.02	.00	-.12*	-.15**	-.13*	.06	.38	.14*	-.03	.18**	1.00

*p<.05, **p<.01

Note) S1: total stress, A1: grade, A2: sex, R1: psychological response, R2: cognitive & active response, R3: physical response, C1: problem-focused, C2: negative focused, C3: emotion-focused, D1: evaluation of cognition, H1: humor, SS: social support

간호대학생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원은 스트레스대처 양상인 문제초점형 대처($r=.74, p<.01$), 회피도피형 대처($r=.82, p<.01$), 심리적 대처($r=.62, p<.01$) 및 인지적 평가($r=.19,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년, 성별, 유머 및 사회적 지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간에는 스트레스반응(심리적 반응 및 신체적 반응 각각 $r=.16, p<.01$)과 인지적 평가($r=.12, p<.05$)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반응과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며,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함양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겠다. 결국 국가시험이 스트레스로 높게 작용하는 4학년은 심리적 반응과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폭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반응에서 심리적 반응과 인지행동적 반응은 인지적 평가기능(각각 $r=.43, r=.40,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머(각각 $r=-.17, r=-.24, p<.01$)와 사회적 지원(각각 $r=-.12, r=-.15,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주관적 스트레스도가 미치는 영향을 독립변수인 간호대학생의 유머, 사회적 지원정도, 학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대학생들이 가지는 주관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정도($\beta=.111, p<.05$)가 다소 유의하게 예측되었으며,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9.0%이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total stress

variables	cumulated R ²	Beta	t	p
grade	.490	.096	1.669	.096
social support		.111	1.882	.051
a sense of humor		-.096	-.1640	.102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된 간호학생용 스트레스척도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 특성과 임상실습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요인으로 생활요인과 함께 간호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과, 우리와 비슷한 동양인의 생활습관을 가진 일본에서 개발한 조사표(山本富士江, 2001,

조유향, 2002)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값이 높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김광일 등의 연구(1994)에서는 중국 대학생, 일본 대학생, 한국대학생의 순으로 한국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간의 차는 알 수 없었으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곽동일 등, 2000)에서는 의과대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으며, 대처 또한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일본 3년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연구(山本富士江, 2001)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1·2학년보다 3학년이 높았으나, 이 가운데 간호스트레스는 2학년보다 3학년에서 높았다. 스트레스반응도 1·2학년보다 3학년이 높았고, 심리적 스트레스반응도 3학년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최고 학년인 4학년에서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스트레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사결과에서 주요 스트레스가 4학년과는 달리 1, 2, 3학년에서 학점관리가 1순위였는데, 최의 연구(최남희 등, 1990)에서도 최대 스트레스에서 학점관리가 높았다. 이는 졸업 후 취업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성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직원채용의 기본조건으로 성적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우수한 학생을 우선하기 하기 때문이다. F학점으로 재수강하더라도 임상실습시간과 전공과목의 시간에 맞추어 재수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간호학생의 경우, 학점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한 간호학생들은 간호대상자인 아픈 환자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며, 그 외에 이론과 실재가 맞지 않는 사실, 학생들이 수궁하기 어려운 임상실습에 대한 평가, 병동에서의 행동의 제한, 실습에 대한 지식부족 등도 간호학생에게 스트레스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尾關友佳子, 1994). 이러한 요인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간호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도가 높음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요인으로 간호요인이 3학년 보다 4학년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그러나 간호요인은 일본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

보다 훨씬 높았으나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처럼 높지 않았다. 생활요인은 한국의 간호대학생이 일본의 간호대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조유향, 山本富士江, 2002). 이는 본 조사대상의 간호대학생의 경우, 기숙사생활과 자취생활자가 일본학생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주요 스트레스로 국가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학년이 주였는데, 주관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스트레스요인, 반응 및 대처양상 등 대부분에서 4학년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이는 국가시험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한 학점관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조사결과(조유향 山本富士江, 2002)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학생이 학점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주간신문 책시캠퍼스(대학주간신문, 2002)가 2002년 9월 10일부터 10일간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으로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취업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간호현장도 취업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에서는 본 조사결과에서 신체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중·일연구결과(김광일 등, 1994)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어 본 조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대처에서 한국학생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중국학생이 소극적이었으며 일본학생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신체증상은 한국학생에서 가장 심하였고 일본과 중국학생에서는 경하였다는 국가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관련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p<.05$)이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박영주 등, 2002)에서도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김교현 등(1994)의 연구에서도 대처전략과 자기효능감 및 확인된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통계후 불안감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관련요인이 확인되었다. 한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광동일 등(2000)의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안녕감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박현숙 등, 2002)에서도 자아존중감($r=-.30$, $p=.000$)과 자기효능감($r=-.36$, $p=.000$)이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미경의 연구(2003)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에서 부정적 정서 반응대처와 자아통제대처는 심한 우울상태와 신체적 증상을 보였고, 긍정적 정서반응은 경한 우울상태를 보여 긍정적 정서반응이 유효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노충래(2002)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학환경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부정적 정서반응보다 긍정적 정서반응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관련요인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스트레스척도가 전국 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도출의 바람직한 척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추가적 연구를 제언한다.

V. 결 론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정도, 요인, 반응 및 대처양상과 스트레스원을 파악하고, 학년간 차이와 일반적 특성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는 4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스트레스요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1·2·3학년은 학점관리로 나타났으나, 4학년은 국가시험이 스트레스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아 $1.45\pm.59$ 점이었고, 3학년이 가장 낮아 $.74\pm.42$ 점으로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심리적 반응이 높은 반면 인지행동적 반응은 낮은 편이었으나($p<.001$), 학년별로는 모두 4학년이 가장 높았고 3학년이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 대처로는 심리적 대처, 문제초점형 대처, 회피도피형

대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대처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았고 문제초점형 대처는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회피도피형 대처는 3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4학년은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폭도 큰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유머(각각 $r=-.17$, $r=-.24$, $p<.01$)와 사회적 지원(각각 $r=-.12$, $r=-.15$,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인으로써의 스트레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있는 접근방안과 대처방법 및 지도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는 접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정희 (1989).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19(2), 203-211

곽동일, 최윤경, 임혜진, 오현주, 정인파, 이민수 (2000).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안녕감에 관한 연구 : 학업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의학교육, 12(2), 227-240.

김교현, 전경구 (1994).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대처 및 그 효과, 스트레스연구, 2(2), 229-236.

김광일, 원호택, Xiehe. L., Peiy. L., Kenji. K. (1994). 중국, 일본 및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3(6), 1321-1328

김영미 (1991).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희 (1999). 호흡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실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남지영 (1999).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자기 지각수준, 스트레스대처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희정, 이선미, 박혜련 (2002).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행동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1), 199-212.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자긍심, 삶의 만족도 및 대학환경인식의 관계와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20.

대학주간신문 (2002). '제스캠퍼스' 1000명 설문 (www.xy.co.kr), 2면

박영주, 오가실, 이숙자, 오경옥, 김정아, 김희순, 최상순, 이성은, 정추자, 전화연 (2002). 한국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32(6), 792-802.

박오장 (1978).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연구, 임상간호, 2(6), 124.

박현옥 (1982).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배정이 (1999).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411-423.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1994).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7(1), 1-10.

신수희 (1999).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식생활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기숙 (1987). 대학생의 성격차원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미나 (1998). 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정현숙, 조미경 (2000).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 스트레스결과에 대한 구조모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2), 321-332.

이인순 (1990).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석사학위논문.

이혜경 (198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준순, 김금순, 김경희, 김원옥, 유재희, 조현숙, 정인숙 (200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경감을

- 위한 발마사지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7(2), 42-53.
- 장혜숙, 김순애, 김홍규 (1999).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유형, 아동간호학회지, 5(1), 5-17.
- 전화연 (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전문대 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조남옥 (1998). 간호학생의 자기표현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17-330.
- 趙留香, 山本富士江 (2002). 스트레스에 대한 한·일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분석,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집, 2, 203-216.
- 최남희, 이남희, 김희숙 (1990).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이 주의변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0(2), 214-226.
-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3), 433-439.
- 최미혜, 김경희, 정혜영, 염순교, 권혜진, 정연강 (1998). 남자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험,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 63-74.
- 하영운 (1996). 대학생의 자아강도수준과 스트레스대처 방식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상하 (1995).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尾關友佳子, 原口雅浩, 津田章 (1991). 大學生の生活ストレス, coping, 性格とストレス反應, The Japanes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2), 1-9.
- 尾關友佳子, 倉崎信子, 原口雅浩, 津田章, 高下保幸 (1993). 日韓大學生の心理的ストレスに関する比較文化的研究, 健康科學會議, 第1回 資料, 13.
- 尾關友佳子, 原口雅浩, 津田章 (1994). 大學生の心理的ストレス過程の共分散構造分析, The Japanes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2), 20-36.
- 山本富士江, 趙留香, 尾關友佳子 (2001). 日韓看護大生のストレス過程の比較考察, 日本國立公衆衛生學會, 367.
- 山本富士江, 尾關友佳子, 原口雅浩, 津田章(2001). 看護學生のストレス過程とその緩和要因, 久留米大學發表 内部資料.
- Fullerton, J. S., & Potkay, C. R. (1973). Student perception of pressures, helps, and psychological servic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14, 355-361.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
- 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

Cho, Yoo Hyang(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difference of stress by the grad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main stres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of Registered Nurses on stress by using the stress self-rating scale targeting university nursing students (n=314). The stress self-rating scale consists of three subscales: stress responses, stressors and coping parts, such a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 sense of humor.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of Registered Nurses was the first problem among the stressors. Stressors of the living factors and nursing factors, and subjective stressors of the surveyed nursing students were the highest among the senior students, but stressors of nursing factors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ade of the nursing students. Perceived stress responses were high in psychological responses of other aspects, and perceived stress responses increased according to the grade ($p<.001$). Senior students had a high weight of perceived stress responses (problem-focused, emotion-focused), and active and negative coping modes.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ed the stressors were coping mode($r=.62-82$, $p<.01$) and cognition($r=.19$, $p<.01$), including the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was very important for seniors, and that we have to develop approaches to decrease stress according to the student grade for nursing education process.

Key words : National Examination, Stress, Nursing students